

여행업

성준원 _ (02) 3772-1538 jwsung79@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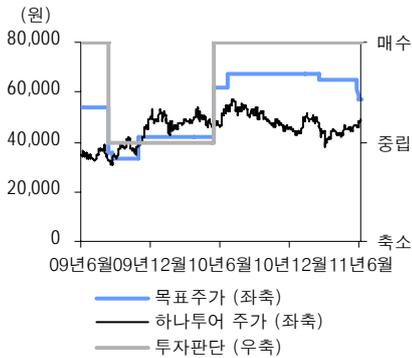
주5일수업제 시행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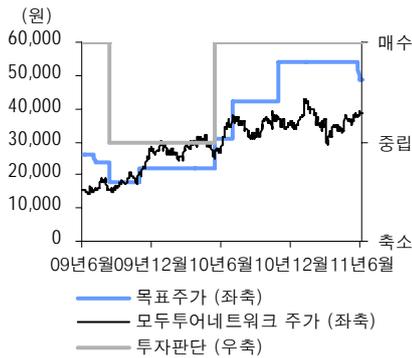
비중확대

- ◆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 ◆ 주5일 관련 가계 지출은 증가 예상
- ◆ 여행업에는 긍정적

투자이견 및 목표주가 추이 (하나투어)



투자이견 및 목표주가 추이 (모두투어)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전일 정부는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의 전면 자율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시행되던 격주 주5일수업제(놀토)는 없어진다. 금년 2학기부터 여건이 되는 10%정도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주5일수업제의 시행이 계획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초,중,고 가정의 약 70%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관련 가계 지출은 증가 예상 주5일수업제와 5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각 가계의 관련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출인 아웃도어 의류, 여행비 등의 지출은 통계로 나오는 수치는 없다. 다만, 2004년 7월 처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지출로 볼 수 있는 교양오락서비스의 지출은 전체 소비지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국내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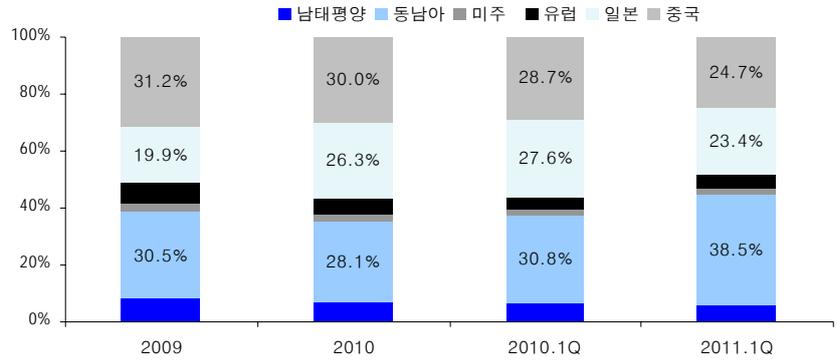
(원)	2003하반기	2004하반기	2005하반기
소비지출	3,781,611	4,015,903	4,197,101
(% YoY)		6.2%	4.5%
교양오락	188,533	197,481	212,332
(% YoY)		4.7%	7.5%
-서적및인쇄물	23,279	22,977	23,961
(% YoY)		-1.3%	4.3%
-교양오락용품기구	69,394	71,714	78,266
(% YoY)		3.3%	9.1%
-교양오락서비스	95,859	102,789	110,104
(% YoY)		7.2%	7.1%

자료: 통계청, 신한금융투자

여행업에는 긍정적 주5일수업제와 5인 이상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늘어난 주말을 이용한 단거리 해외여행(동남아, 중국, 일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가족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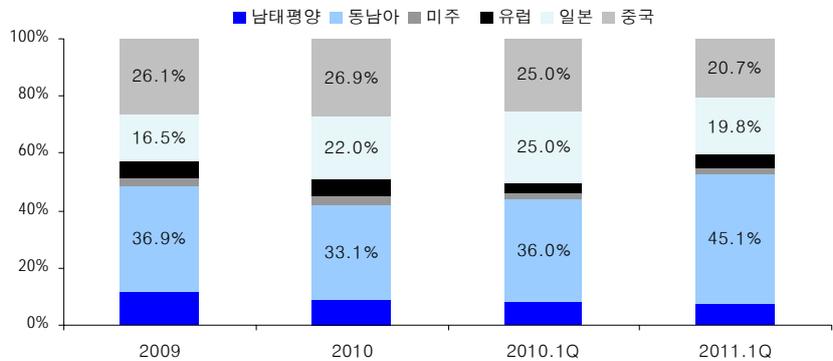
2011년 1분기 기준으로 하나투어 해외송출객의 지역별 비중은 동남아가 38.5%로 가장 크다. 중국은 24.7%로 두번째, 일본은 세번째인 23.4%이다. 모두투어도 동남아가 45.1%로 제일 많다. 양사 모두 단거리 지역이 8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5일제와 연계해서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말 여행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투어 지역별 송출객 비중



자료: 회사자료, 신한금융투자

모두투어 지역별 송출객 비중



자료: 회사자료, 신한금융투자

한편, 한국관광공사의 2009년 가족여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년간 가족여행 횟수는 평균 3.1회이고,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2.5회로 평균 미만이 었다. 가족여행 계획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들간의 일정 맞추기로 조사되었다. 1박 2일 이상 가족여행을 가는 경우의 43.5%가 일반 주말에 가고, 35.5%가 휴가 및 방학 때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5일수업제가 시행된다면, 가족여행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서 여행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대해 매수의견을 유지한다.

주5일 근무 및 수업제

2004년 7월	1000명 이상 사업장 주5일제 시행
2005년 7월	300명 이상 사업장 주5일제 시행
201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 주5일제 시행
2005학년도	월1회 주5일수업제 시행
2006학년도	월2회 주5일수업제 시행
2012학년도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자료: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언론자료

투자등급 매수 6개월 수익률 +15% 이상, 중립 6개월 수익률 -15% ~ +15%, 축소 6개월 수익률 -15% 이하 (2003년 2월 10일부터 적용)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성준원)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체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신한금융투자